

주택유형별 1인가구의 범죄 안전성에 대한 조사 연구

A Research Study on Crime Prevention for One-person Households by Type of Houses

황성은* 강부성** 박지연***
Hwang, Sung-Eun Kang, Boo-Seong Park, Ji-Yeon

Abstract

There is a growing residential type to be one-person households, but alternative and consideration for them is short. Especially, one-person households's crime prevention is not considered. So, In this study, one-person households resident's inside and surroundings of residential's fear of crime and a part of weakness for crime were investigated by types of houses and sex. For the result, One-room resident's fear of crime is the highest at inside, surroundings, fear of crime compare to other type of residents and more than 2 households and the apartment's resident has less fear of crime at inside and surroundings than other types residents. Also, female has more fear of crime than male at inside, but outside's is resemblance between them.

Keywords : One-person Households, Crime Prevention, Fear of Crime

주요어 : 1인가구, 범죄 안전성, 범죄 불안감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거환경에서 범죄로부터 안전성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삶의 질에서 점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국민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안전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도시환경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2012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시민제안 정책 99개 중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이 서울시민들의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을 보면 확인된다.¹⁾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1인 가구는 약 454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분의 1 가량(25.3%)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980년 약 38만(4.8%)가구에 불과했던 1인가구 수가 30년 새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조사한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 수는 2000년 127만 9천가구에서 2010년 221만 8천가구로 약 1.8배 가량

늘어났는데²⁾, 2012년 3월 서울시가 25-49세 여성 1인 가구 5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에 응답자의 77%가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꼽았다는 사실은 여성 1인가구의 범죄예방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반적인 주거 및 범죄환경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주거유형 중에서도 증가추세를 보이는 1인가구 및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및 범죄환경에 대한 관심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2010년 이후로는 1인, 2인 가구 모두 4인 가구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³⁾, 1인가구의 범죄불안감에 대한 마땅한 치안 대책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가구의 범죄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1인가구를 위한 범죄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주 후 평가를 통해 1인 가구 거주자의 주택 내·외부에서의 범죄불안감 및 범죄 불안요소를 도출하여, 향후 1인가구 주거환경에서의 범죄환경 개선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회원(주저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회원(교신저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정회원,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연구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Boo-seong Kang, Dept. of Architecture, Seoul Natl. Univ of Science & Technology, 232 Kongrungs-ro, Nowon-gu, Seoul, 139-743, Korea. E-mail: bskang@seoultech.ac.kr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일부)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1) 박혜숙 (2012.05.07)., 서울시민이 뽑은 최고의 정책은?, 하이서울뉴스. (http://inews.seoul.go.kr/hsn/program/article/articleDetail.jsp?boardID=179190&category1=NC1&category2=NC1_5)
2) 통계청 (2012).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www.kostat.go.kr
3)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규모 축소 가능성 진단(KB 경영정보리포트 No. 2012권4호). 서울: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택유형과 1인가구의 범죄에 관한 연구 및 거주 후 평가 연구를 살펴보고, 2) 설문조사를 이용한 거주 후 평가를 통하여 1인가구 거주자의 주택유형별 주택 내·외부 범죄불안감 및 범죄 취약 요소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1인가구 거주자의 범죄불안감 정도 및 1인가구 주택의 범죄 취약요소를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11월에 총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그 중 유효응답자는 157명이며, 수도권에 위치한 원룸형 주거지,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1인가구 거주자로 한정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인가구 범죄안전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고, 1인가구 거주 후 평가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선행연구는 1인가구, 주택유형별 범죄, 주택유형별 거주 후 평가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1) 1인가구에 대한 연구

Lee(2010)의 1인 거주자의 Life-Style 분석을 통한 생활권내 공공공간의 구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1인거주지를 필요로 하는 구성원에 대한 비율과 수요, 이에 따른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생활권 구성 방향과 시너지 효과를 제시하였다. Kim(2008)의 환경적 특성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빈도를 통하여 상황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변인을 도로의 면적, 성별과 연령, 1인가구로 설정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강도, 강간, 절도 범죄에 1인가구가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주택유형별 거주 후 평가

Park, Ryoo & Park(2007)의 건축계획적 측면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관한 거주 후 평가에서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총체적 만족도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세대 계획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Kim(2009)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거주 후 평가 연구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공동주택 단지에 살고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 후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추진될 리모델링 공동주택 계획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Kim(2000)의 중소규모 아파트 평면유형에 따른 거주 후 평가에서는 중소규모 아파트의 평면유형을 식당점 부위의 배치에 따라 분류하고, 이 두 유형에 사는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 비교를 통한 주거환경에 대해 평가하는 등 주택유형별 거주 후 평가는 이미 많이 이루어진 실정이다.

(3) 주거지에서의 범죄 연구

Jung & Kim(1996)의 주거환경의 상황적 특성 및 범죄 발생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단독주택지역의 주택침입범

죄를 중심으로-에서는 특정 시에 위치한 단독주택지역의 범죄적 특성을 파악하고,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Choi, Kang & Lee(2009)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 범죄취약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범죄취약요인과 불안요인을 조사하여, 여기에 적용 가능한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1인가구의 주거지 주변 공공공간 구성에 관한 분석이나, 특정 지역의 1인가구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일부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있지만, 전반적인 1인가구 범죄나 범죄 불안감에 관련된 연구는 미비하며,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주 후 평가나 1인가구, 소형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범죄 관련 연구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대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주택유형별 주거환경 연구 및 거주 후 평가 연구 등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1인가구 주거지의 범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II. 주택유형별 범죄 취약 요소 분석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주택유형을 원룸형 주거지,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아파트로 한정하였으며, 주택유형별 특징과 범죄 취약 요소를 살펴보겠다.

원룸형 주거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 원룸텔 등의 주거 형식을 포함하는 주택유형으로 정의하였다. 고시원이나 원룸텔 등의 주택유형은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과 비슷한 주택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다른 주택유형과 다르게 대부분 화장실, 식당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다중주택, 기숙사 형태로 사용하는 것과, 고시를 목적으로 하는 거주자나 대학생들이 자취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거비용이 저렴한 주택이라는 특징 등이 있다. 원룸형 주거지의 경우, 창문이나 현관을 통한 범죄 발생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며, 대학생, 직장인 1인가구 등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 빈집털이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파트의 경우, 층수가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고층이고, 대부분 경비실, 경비원 등의 감시가 이루어지며, 특히 아파트의 경우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지 주민들에 의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범죄 발생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방문판매 등을 가정하여 발생하는 사기범죄나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등이 예상되는 범죄라 할 수 있겠다.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경우, 보통 층수가 4층 이하로, 아파트에 비해 큰 단지를 구성하지 않으며, 대부분 경비실, 경비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적 감시성이 아파트에 비해 떨어지므로, 저층에서의 범죄 발생이 우려되며, 특히 창문을 통한 범죄 등이 예상된다.

IV.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거주 후 평가 분석

1. 설문 구성

본 설문은 2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설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성되었고, 총 19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반사항과 주택 내부, 주택 외부의 범죄불안감 및 범죄 취약 요소로 나누어 질문을 구성하였다. 조사 기간 및 설문지 회수, 자세한 설문 구성 항목들은 <Table 1>과 같다.

설문은 1인가구 거주자에게 직접 받는 설문과 인터넷상의 1인가구 동호회 사이트를 이용한 간접 설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응답자 일반사항 및 거주지 일반조사

거주지 일반조사 항목은 주택유형 및 층수, 거주기간과 거주이유, 귀가시간 및 하루 평균 집 비우는 시간, 대중교통 하차 장소로부터 집까지 도보로 이용시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 등으로 구성되었고, 응답자 일반사항에서는 응답자 성별, 나이, 직업을 질문하였다. 거주지 일반조사

및 응답자 일반사항 설문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주택 내·외부에서의 범죄불안감 및 범죄 취약요소 분석을 하는데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2) 거주지에 대한 의식 조사

거주지에 대해서는 계단실, 복도, 공용홀 등을 포함한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 주택과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을 포함한 아파트 주동 내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주택 내부에서의 범죄불안감 및 타 주택유형과 비교하여 응답자의 주택 범죄 위험도, 2인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과 비교하였을 때 1인가구 주택의 범죄위험도, 1인가구 주택의 범죄 취약 이유 및 창문, 현관, 계단, 공용홀 등의 보완 필요 요소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3) 거주지 주변에 대한 의식 조사

거주지 주변에 대해서는 골목길, 건물 외부공간을 포함한 주택의 주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주택 주변의 범죄위험도 및 범죄 취약 요소, 주택 주변이 범죄에 취약한 이유 및 보완 필요 요소와 주택과 주택 주변의 범죄 취약 요소에 보완시설 설치 등을 위한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사 및 금액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Table 1. Data Collection, Instrumentation and Data Analysis

Category	Contents	N			
Data collection	Pre test period	10.15-10.19.	20		
	Post test period	11.05-11.30	157		
Instrumentation (questionnaire items)	General particulars of a respondent	Sex			
		Age			
		Occupation			
	General particulars of residential		The number of storis		
			The type of residence		
			A period of residence		
			A reason of residence		
			Returning home time		
			Empty hours of house		
			Times between transportation and house		
		Fear of crime and crime facts in house		Fear of crime	
				Fear of crime compare to other type of residents	
				Fear of crime compare to more than 2 households	
			The reason of weakness for crime		
	Fear of crime and crime facts at environment		The part of weakness or supplementation for crime		
			Fear of crime		
			The reason of weakness for crime		
			The part of weak for crime		
	Payment intention		The part of supplementation for crime		
			Payment intention		
		Sex			
Fair cost for prevention of crime		Type of residence			
		Fair cost for prevention of crime			
		Sex			
Data analysis for windows		Type of residence			
	SPSS 12.0	Oneway analysis of Variance, Frequency, Crosstabulation,			

2. 응답자 일반사항 및 거주지 일반 조사 분석

(1) 응답자 일반사항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Table 2>와 같이 원룸형 주거지 (35.7%),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33.1%), 아파트(31.2%)의 순이고, 응답자는 여성 93명(59.2%), 남성 64명(40.8%)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세-29세(70.7%)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0세-39세(16.6%), 50세 이상(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직업은 직장인(45.9%), 학생(30.6%), 무직이나 기타(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Particulars of a Respondent

		F	%	Total
Type of residents	One-room	56	35.7	157
	Apartment	49	31.2	
	Multiplex·Multi-household·Row house	52	33.1	
Sex	Male	64	40.8	157
	Female	93	59.2	
Age	Below 20's	111	70.7	157
	30's	26	16.6	
	40's	4	2.5	
	Above 50's	16	10.2	
Occupation	Student	48	30.6	157
	Office worker	72	45.9	
	Freelancer	10	6.3	
	Etc.	27	17.2	

(2) 거주지 일반조사 분석

1인가구 응답자의 거주지 일반조사 조사 결과 중 거주 층수, 기간, 집을 비우는 시간은 <Table 3>과 같다. 거주 층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거주

층수 평균은 4.37층이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96층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 2.55층으로 가장 낮았다. 거주한 기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23.94개월,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 32.42개월로 가장 거주기간이 길고, 원룸은 13.52개월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집을 비우는 시간도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적으로는 10.46시간이지만, 그 중 원룸이 11.52시간으로 가장 오래 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General Particulars of Residential -1 (Average)

	One-room	Apartment	M·M·R ¹⁾	Total
The number of storis	3.79	6.96	2.55	4.37 F=31.566***
A period of residence	13.52	26.86	32.42	23.94 F=7.579**
Empty hours of house	11.52	9.84	9.92	10.46 F=5.332**

Note. 1) Multiplex · Multi-household · Row house
*p< .05, **p< .01, ***p< .001

거주 이유, 귀가 시간대, 대중교통 하차 장소로부터 집까지 도보로 이동시 걸리는 시간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현재 주택에 거주하는 이유로는 학교·직장과의 접근성(41.4%)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목적성 거주(14.6%), 거주비용의 적절함(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귀가 시간은 전체적으로 10시부터 12시

사이(26.1%)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8시부터 10시 사이(25.5%)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하차 장소로부터 집까지 도보로 이동시 걸리는 시간은 10분 미만(56.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 이유의 주택 유형별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원룸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거주 이유가 학교·직장과의 접근성이 58.9%로 다른 이유들보다 월등히 높았고, 아파트는 학교·직장과의 접근성(36.7%)과 목적성 거주(32.7%)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에서는 학교·직장과의 접근성(26.9%)과 목적성 거주(25.0%), 가족 및 지인과의 근접성(21.2%)이 거주 이유로 나타났다. 귀가 시간에 대한 주택유형별 분석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룸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귀가시간이 10시부터 12시 사이(32.1%)로 가장 늦으며,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은 6시부터 8시 사이(30.8%)로 가장 귀가시간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하차 장소로부터 집까지 도보로 이동시 걸리는 시간의 주택유형별 결과는 원룸(58.9%)과 아파트(61.2%)는 1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경우는 10분미만(48.1%)과 10분에서 20분 사이(48.1%)가 동등하게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이유의 성별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여성 응답자는 거주 이유가 학교·직장과의 접근성 50.5%, 목적성 거주 19.4%

Table 4. General Particulars of Residential-2

	One-room Apartment M·M·R ²⁾			χ^2	Male	Female	χ^2	Sub total	Total
	F %	F %	F %		F %	F %			
A reason of residence	Accessibility of school and work	33 58.9	18 36.7	14 26.9	18 28.1	47 50.5	25.877**	65 41.4	157 100.0
	Suitable cost for residence	7 12.5	-	13 25.0	12 18.8	8 8.6		20 12.7	
	Residence of purpose ¹⁾	5 8.9	16 32.7	2 3.8	5 7.8	18 19.4		23 14.6	
	Convenience of samll-size houses	1 1.8	6 12.2	1 1.9	6 9.4	2 2.2		8 5.1	
	Convenience of environment	5 8.9	4 8.2	5 9.6	7 10.9	7 7.5		14 8.9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2 3.6	-	6 11.5	3 4.7	5 5.4		8 5.1	
	Nearness to family and acquaintance	1 1.8	5 10.2	11 21.2	13 20.3	4 4.3		17 10.8	
	Etc.	2 3.6	-	-	-	2 2.1		2 1.3	
Returning home time	Before 6p.m	-	6 12.2	7 13.5	6 9.4	7 7.5	14.252*	13 8.3	157 100.0
	6p.m - 8p.m	8 14.3	6 12.2	16 30.8	7 10.9	23 24.7		30 19.1	
	8p.m - 10p.m	17 30.4	16 32.7	7 13.5	15 23.4	25 26.9		40 25.5	
	10p.m - 12a.m	18 32.1	11 22.4	12 23.1	16 25.0	25 26.9		41 26.1	
	After 12a.m	2 3.6	4 8.2	-	6 9.4	-		6 3.8	
	No fixed.	11 19.6	6 12.2	10 19.2	14 21.9	13 14.0		27 17.2	
Times between transportation and house	Below 10min	33 58.9	30 61.2	25 48.1	37 57.8	51 54.8	(N.S)	88 56.1	157 100.0
	10min - 20min	8 14.3	11 22.4	25 48.1	22 34.4	22 23.7		44 28.0	
	20min - 30min	4 7.1	4 8.2	-	2 3.1	6 6.5		8 5.1	
	Above 30min	2 3.6	-	-	-	2 2.1		2 1.3	
	Drive	9 16.1	4 8.2	2 3.8	3 4.7	12 12.9		15 9.6	

Note. 1) Independence or Short Residence etc.

Note. 2) Multiplex · Multi-household · Row house
*p< .05, **p< .01, ***p< .001

등의 순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 응답자는 학교·직장과의 접근성 29.1%, 가족 및 지인과의 근접성 20.3%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가 시간의 성별 분석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 응답자는 귀가시간이 8시에서 10시, 10시에서 12시 사이(각 26.91%)로 나타났으며, 남성 응답자는 일정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21.9%)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하차 장소로부터 집까지 도보로 이동시 걸리는 시간은 남성과 여성 응답자 모두 10분 미만(57.8, 54.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주택내부 범죄불안감 및 범죄요인 분석

주택 내부는 계단실, 복도, 공용 홀, 엘리베이터 홀 등을 포함하여 범죄 불안감 정도 및 범죄 취약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고, 주택 내부에서의 범죄불안감 조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주택내부에서의 범죄불안감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값은 3.06으로 보통수준의 불안감을 보였으며, 타 주택유형과 비교하여 응답자 주택유형의 범죄위험도에 대한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는 3.12의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응답을 보였다. 2인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과 비교하였을 때의 1인 가구 범죄불안감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값은 2.08으로 2인 가구에 비해 1인가구 주택이 범죄 위험도가 다소 높다는 응답을 보였다.

주택유형별 주택내부에서의 범죄불안감은 원룸이 2.70,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은 3.19, 아파트가 3.3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원룸 거주자가 보통 이하의 다소 불안감을 느끼며, 아파트 거주자는 보통을 상회하는 다소 안전에 가까운 응답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타 주택유형과 비교하여 응답자 주택유형의 범죄위험도에 대해서 주택유형별로는 원룸 2.64,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3.02, 아파트 3.78로 이는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원룸 거주자가 타 주택유형에 비해 원룸이 범죄위험도가 다소 높다고 느끼며, 아파트 거주자는 타 주택유형에 비해 아파트가 범죄위험도가 다소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2인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과 비교하였을 때의 1인 가구 범죄불안감 정도에 대한 주택유형별 분석 결과는 원룸이 1.66,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 2.29, 아파트가 2.35로 이는 유

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거주자가 2인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에 비해 범죄 위험도가 높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을 알 수 있고, 아파트 거주자도 타 주택유형에 비해서는 낮지만 보통 이하로 범죄불안감이 다소 높다는 응답을 보인 것을 확인하였다.

성별 주택내부에서의 범죄불안감은 여성이 2.7, 남성이 3.58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이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다소 불안감을 느끼며, 남성의 경우 보통 이상의 다소 안전에 가까운 응답을 보이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 주택유형과 비교하여 응답자 주택유형의 범죄위험도에 대해서 여성 3.05, 남성 3.22로 보통 정도의 비슷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과 비교하였을 때의 1인가구 범죄불안감은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1.83, 남성 2.45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범죄불안감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주택이 범죄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복수응답 항목으로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적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0.4%, 동거인이 없으므로 문단속·우편물 관리 등을 함께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인 이유가 16.9%, 자연감시 및 CCTV 등 보안장치가 미흡하거나 지하실, 복도, 계단 모퉁이 공간 등 은닉장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 13.7%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는 원룸에서는 타 주택유형에 비해 자연감시 및 CCTV 등 보안장치 미흡(20.0%)이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기 때문(18.5%)과 창문의 파손 또는 침입 용이(16.9%)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서는 이와 다르게 동거인이 없으므로 문단속·우편물 관리 등을 함께할 사람이 없기 때문(26.7%)이 월등히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기 때문(24.4%)과 계단·복도·공용 출입구 등의 조명이 어둡거나(16.3%) 지하실, 복도, 계단의 모퉁이공간 등 은닉장소가 존재하기 때문(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에서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기 때문(19.4%), 동거인이 없으므로 문단속·우편물 관리 등을 함께할 사람이 없기 때문(17.4%), 지하실, 복도, 계단의 모퉁이 등 은닉장소가 존재하기 때문(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Fear of Crime Inside of House - Type and Sex of Residents (Average)

	One-room	Apartment	M·M·R ¹⁾	Total	Male	Female	Total
Fear of crime	2.70	3.33	3.19	3.06 F=5.870**	3.58	2.70	3.06 F=33.112***
Fear of crime compare to other type of residents	2.64	3.78	3.02	3.12 F=16.484***	3.22	3.05	3.12 (N.S)
Fear of crime compare to more than 2 households	1.66	2.35	2.29	2.08 F=9.074***	2.45	1.83	2.08 F=17.254***

Note. 1) Multiplex · Multi-household · Row house
- 5 Grade Standard (1Grade: Anxiety. 5grade: Safety)
*p<.05, **p<.01, ***p<.001

Table 6. The Reason of Weakness for Crime (The Plural Response)

	One-room	Apartment	M·M·R ¹⁾	Male	Female	Sub total	Total
	F %	F %	F %	F %	F %	F %	F %
Insufficiency of security	26 20.0	5 5.8	12 12.2	17 16.3	26 12.4	43 13.7	314 100.0
Esiness of break -down a window	22 16.9	6 7.0	7 7.1	9 8.7	26 12.4	35 11.2	
Esiness for break -down a entrance	14 10.8	1 1.2	14 14.3	5 4.8	24 11.4	29 9.2	
Darkness of light at a stair etc.	15 11.5	14 16.3	11 11.2	14 13.5	26 12.4	40 12.7	
Exist of concealing plece	14 10.8	14 16.3	15 15.3	15 14.4	28 13.3	43 13.7	
Long time to empty house	24 18.5	21 24.4	19 19.4	28 26.9	36 17.1	64 20.4	
No roommate	13 10.0	23 26.7	17 17.4	11 10.6	42 20.0	53 16.9	
None or etc.	2 1.5	2 2.3	3 3.1	5 4.8	2 1.0	7 2.2	

Note. 1) Multiplex · Multi-household · Row house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경우, 동거인이 없으므로 문단속 · 우편물 관리 등을 함께할 사람이 없기 때문(20.0%)이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기 때문(17.1%)과 지하실, 복도, 계단의 모퉁이공간 등 은닉장소가 존재하기 때문(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 응답자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기 때문(26.9%), 자연감시 및 CCTV 등 보안장치 미흡(16.3%), 지하실, 복도, 계단의 모퉁이 등 은닉장소가 존재하기 때문(14.4%), 등의 순으로 여성 응답자와 다른 응답 순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취약한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Table 7>과 같이 창문 · 베란다에서는 잠금장치 강화(24.9%), 방범창을 통한 외부 침입 방지(22.5%) 등의 순이고, 현관에서는 잠금장치 강화(28.1%), 인터콤 등 외

부확인이 가능한 설비 설치(2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단 · 복도에서는 CCTV나 불록거울 등 보안장비 설치(31.4%), 조명 강화 또는 센서조명 설치(25.9%) 등의 순이며, 공용출입구 · 공용홀에서는 경비 등을 통한 외부인 출입방지(36.5%), CCTV나 잠금장치 강화 등 보안장비 설치(3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원룸 거주자는 창문 · 베란다에서는 방범창을 통한 외부 침입방지(28.9%), 현관에서는 인터콤 등 외부 확인이 가능한 설비 설치(38.6%), 계단 · 복도에서는 CCTV · 불록거울 등 보안장비 설치(36.7%), 공용 출입구 · 공용홀에서는 경비 등을 통한 외부인 출입방지(43.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에서는 원룸과 다르게 창문 · 베란다에서는 범죄에 취약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음(33.3%), 현관에서는 전단지 · 배달물 등

Table 7. The Part of Weakness or Supplementation for Crime (the Plural Response)

	One-room	Apartment	M·M·R ¹⁾	Male	Female	Sub total	Total
	F %	F %	F %	F %	F %	F %	F %
Window · Veranda	A security grille to prevent a trespass	24 28.9	8 13.3	16 22.9	14 20.9	34 23.3	48 22.5
	Locking device's intension	18 21.7	16 26.7	19 27.1	13 19.4	40 27.4	53 24.9
	Prevention of trespass through a installation	11 13.3	6 10.0	5 7.1	-	22 15.1	22 10.3
	Block a outside's eyeline through a blind	20 24.1	10 16.7	13 18.6	7 10.4	36 24.7	43 20.2
	None	10 12.0	20 33.3	17 24.3	33 49.3	14 9.5	47 22.1
Entrance	Locking device's intension	33 32.7	18 26.9	17 23.0	18 23.4	50 30.3	68 28.1
	Prevent to pile up a leaflet	11 10.9	20 29.8	23 31.1	22 28.6	32 19.4	54 22.3
	Light's intension or install of sensor	18 17.8	6 9.0	11 14.9	9 11.6	26 15.8	35 14.5
	Install for checking a outside	39 38.6	11 16.4	14 18.9	16 20.8	48 29.1	64 26.4
	None	-	12 17.9	9 12.1	12 15.6	9 5.4	21 8.7
Stair · Hallway	Install of security system	36 36.7	16 26.2	17 27.9	27 34.6	42 29.6	69 31.4
	Light's intension or install of sensor	24 24.5	18 29.5	15 24.6	17 21.8	40 28.2	57 25.9
	Secure a outside's eyeline through a window	31 31.6	9 14.8	11 18.0	12 15.4	39 27.5	51 23.2
	Maintenance of extra place and cleanliness	7 7.2	7 11.5	7 11.5	10 12.8	11 7.7	21 9.5
	None	-	11 18.0	11 18.0	12 15.4	10 7.0	22 10.0
Main Entrance · Hall	Outsider's access control	44 43.3	23 37.7	17 25.4	33 38.0	51 35.7	84 36.5
	Light's intension or install of sensor	14 13.7	4 6.5	14 20.9	13 14.9	19 13.3	32 13.9
	Install of security system	35 34.3	22 36.1	23 34.3	28 32.2	52 36.4	80 34.8
	Maintenance of extra place and cleanliness	9 8.7	-	1 1.5	1 1.1	9 6.2	10 4.4
None	-	12 19.7	12 17.9	12 13.8	12 8.4	24 10.4	

Note. 1) Multiplex · Multi-household · Row house

쌓임 방지(29.8%), 계단·복도에서는 조명 강화 또는 센서조명 설치(29.5%), 공용 출입구·공용홀에서는 원룸과 마찬가지로 경비 등을 통한 외부인 출입방지(37.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에서는 창문·베란다에서는 잠금 장치 강화(27.1%), 현관에서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단지·배달물 등 쌓임방지(31.1%), 계단·복도에서는 원룸과 마찬가지로 CCTV·블록거울 등 보안장비 설치(27.9%), 공용 출입구·공용홀에서는 원룸이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경비 등을 통한 외부인 출입방지(25.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는 창문·베란다 및 현관에서 잠금 장치 강화(27.4%, 20.3%), 계단·복도 및 공용 출입구·공용홀에서는 CCTV·블록거울 등 보안장비 설치(29.6%, 36.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는 여성 응답자와 다르게 창문·베란다에서는 범죄에 취약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음(49.3%), 현관에서는 전단지·배달물 등 쌓임 방지(28.6%), 계단·복도에서는 CCTV·블록거울 등 보안장비 설치(29.6%), 공용 출입구·공용홀에서는 경비 등을 통한 외부인 출입방지(38.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주택외부 범죄불안감 및 범죄요인 분석

주택 외부는 골목길, 건물 외부공간 등을 포함한 주택의 주변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는 <Table 8>과 같이 주택외부에서의 범죄불안감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으로 2.72의 다소 불안전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Table 8. Fear of Crime at Outside of Residential - Type of Residents (Average)

One-room	Apartment	M·M·R ¹⁾	Total	Male	Fe-male	Total
2.43	3.04	2.74	2.72	2.72	2.73	2.72 (N.S)
F=5.067**						

Note. 1) Multiplex · Multi-household · Row house
 *p<.05, **p<.01, ***p<.001
 - 5 Grade Standard (1Grade: Anxiety. 5Grade: Safety)

주택유형별로는 원룸이 2.43,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은 2.74, 아파트가 3.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원룸과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거주자는 거주지

주변에서 다소 불안전함을 느끼며, 아파트 거주자는 보통 정도의 범죄 불안감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이 남성과 여성이 각 2.72, 2.73으로 다소 불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주택 주변에서 범죄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Table 9>와 같이 전체적으로 골목길 등 거주지 주변 도로(54.1%), 주차장 등 외진 공간(26.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룸(각 67.9%, 21.4%), 아파트(각 36.7%, 28.6%),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각 55.8%, 30.8%)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특히 원룸에서는 골목길 등 거주지 주변 도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67.9%로 타 주택유형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 주변에서 범죄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다(20.4%)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 분석 결과 역시 주택 유형과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 모두 골목길 등 거주지 주변 도로(53.1%, 54.9%), 주차장 등 외진 공간(23.4%, 29.0%) 등의 순으로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범죄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보완 요소는 <Table 10>과 같이 나타났다. 범죄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서는 전체적으로 골목길 모퉁이, 주차장, 외진 공간 등의 은닉장소가 존재하기 때문(33.5%), 가로등·조명 등이 미흡하여 주변이 어둡기 때문(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원룸(각 25.9%, 30.8%), 아파트(각 37.0%, 24.1%),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각 41.7%, 20.8%)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원룸과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에서는 경비원 또는 CCTV 등의 감시시설물이 부족하기 때문(각 20.2%, 11.1%)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아파트에서는 주택 주변에서 범죄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다(18.5%)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 범죄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 응답자가 비슷한 응답을 보였는데, 골목길 모퉁이, 주차장, 외진 공간 등의 은닉장소가 존재하기 때문(31.4, 34.7%)과 가로등·조명 등이 미흡하여 주변이 어둡기 때문(31.4%, 2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서는 전체적으로 경비원·순찰 등을 통한 보안 강화(34.0%), 골목길 등 주변 도로의 조명 강화(31.9%), CCTV·블록거울 등 보안

Table 9. The Part of Weakness for Crime at Outside of Residential

	One-room	Apartment	M·M·R ¹⁾	χ^2	Male	Female	χ^2	Sub total	Total
	F %	F %	F %		F %	F %		F %	F %
An alley	38 67.9	18 36.7	29 55.8	16.741*	34 53.1	51 54.9	N.S	85 54.1	157 100.0
Deserted place	12 21.4	14 28.6	16 30.8		15 23.4	27 29.0		42 26.8	
Outside's facilities	2 3.6	4 8.2	3 5.8		6 9.4	3 3.2		9 5.7	
None	2 3.6	10 20.4	3 5.8		8 12.5	7 7.5		15 9.6	
Etc.	2 3.6	3 6.1	1 1.9		1 1.6	5 5.4		6 3.8	

Note. 1) Multiplex · Multi-household · Row house
 *p<.05, **p<.01, ***p<.001

Table 10. Reason of Weakness for Crime and Supplementation Factors at Outside of Residential (the Plural Response)

	One-room	Apartment	M·M·R ¹⁾	Male	Female	Sub total	Total
	F %	F %	F %	F %	F %	F %	F %
The reason of weakness for crime	Darkness of light on the periphery of a residence	32 30.8	13 24.1	15 20.8	26 31.4	34 23.1	60 26.1
	Exist of concealing place as a parking lot or corner	27 25.9	20 37.0	30 41.7	26 31.4	51 34.7	77 33.5
	Dirty environment owing to trash	-	-	5 6.9	4 4.8	1 0.7	5 2.2
	Approaching entertainment facilities	14 13.5	4 7.4	2 2.8	3 3.6	17 11.6	20 8.7
	Rarely come and go or absence of multiuse facility	7 6.7	5 9.3	6 8.3	3 3.6	15 10.2	18 7.8
	Shortage of surveillance as CCTV	21 20.2	2 3.7	8 11.1	10 12.0	21 14.3	31 13.5
	None	3 2.9	10 18.5	3 4.2	8 9.6	8 5.4	16 6.9
	Etc.	-	-	3 4.2	3 3.6	-	3 1.3
Total	104 100.0	54 100.0	72 100.0	83 100.0	147 100.0	230 100.0	
The part of supplementation for crime	Intension of guard and patrol	42 40.8	20 32.8	17 25.0	16 18.6	63 43.2	79 34.0
	Make a clean outer environments	6 5.8	1 1.6	8 11.8	7 8.1	8 5.5	15 6.5
	Install of security system	26 25.3	7 11.5	21 30.9	28 32.6	26 17.8	54 23.3
	Light's intension of an alley around residence	27 26.2	27 44.3	20 29.4	31 36.0	43 29.5	74 31.9
	Vitalization of community center	2 1.9	-	-	-	2 1.3	2 0.9
	None	-	6 9.8	2 2.9	4 4.7	4 2.7	8 3.4
	Total	103 100.0	61 100.0	68 100.0	86 100.0	146 100.0	232 100.0

Note. 1) Multiplex · Multi-household · Row house

Table 11. Payment Intention

		Yes	No	Total
		F %	F %	F %
Payment Intention		86 54.8	71 45.2	157 100.0
Sex	Male	31 48.4	33 51.6	157
	Female	55 59.1	38 40.9	100.0 (N.S)
Type of residence	One-room	31 55.4	25 44.6	157
	Apartment	32 65.3	17 34.7	100.0 (N.S)
	M·M·R ¹⁾	23 44.2	29 55.8	

Note. 1) Multiplex · Multi-household · Row house

장비 설치(23.3%) 등의 순이며, 주택 유형별로는 원룸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응답이 전체 응답 순과 일치하였다(각 40.8, 26.2, 25.3%).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골목길 등 주변 도로의 조명 강화(44.3%)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비원·순찰 등을 통한 보안강화(32.8%), CCTV·블록거울 등 보안장비 설치(11.5%) 등의 순이고,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거주자는 CCTV·블록거울 등 보안장비 설치(30.9%), 골목길 등 주변 도로의 조명 강화(29.4%), 경비원·순찰 등을 통한 보안 강화(2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남성 응답자의 경우 골목길 등 주변 도로의 조명 강화(36.0%), CCTV·블록거울 등 보안장비 설치(32.6%) 등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여성 응답자는 경비원·순찰 등을 통한 보안 강화(43.2%), 골목길 등 주변 도로의 조명 강화(29.5%) 등의 순으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내·외부의 범죄에 취약한 부분에 보완시설 설치 등을 위한 추가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Table 11>과 같이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54.8%가 부담 의사가 있으며, 남성

Table 12. Fair Cost for Prevention of Crime (Average)

Fair cost for prevention of crime		5.28
Sex	Male	7.58
	Female	3.98
Type of residence	One-room	5.58
	Apartment	4.47
	Multiplex· Multihousehold· Row house	6.00
		(N.S)

*p<.05, **p<.01, ***p<.001

의 48.4%, 여성의 59.1%가 추가비용 부담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의 거주자가 65.3%로 부담의사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원룸 55.4%,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44.2%의 순으로 부담의사를 파악할 수 있다.

추가비용 부담 의사가 있는 응답자에 한해, 부담 적정 금액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부담 적정금액은 월평균 5.28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7.58만원으로 여성 3.98만원보다 약 3.5만원 더 높은 부담 비용을 낼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거주자 6.00만원, 원룸 거주자 5.58만원, 아파트 거주자 4.47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이용한 1인가구의 거주 후 평가를 통하여 1인가구 거주자의 주택 내·외부 범죄불안감 및 범죄 취약 요소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를 통

해 도출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룸형 주택의 거주자는 타 주택유형의 거주자에 비해 현재 거주하는 주택유형에서의 범죄 불안감, 타 주택유형과 비교하였을 때의 불안감, 2인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과 비교하였을 때 1인가구의 범죄 불안감, 주택 외부 및 주택 주변에서도 원룸형 주택의 거주자가 범죄 불안감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원룸형 주택의 범죄불안감이 높은 원인과 불안 요소 도출 및 해결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원룸형 주택 거주자의 거주기간이 가장 짧고, 집을 비우는 시간이 가장 길며, 학교·직장과의 접근성이 거주지 선택 조건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라 보인다. 또한 귀가시간이 타 주택유형 거주자에 비해 가장 늦은 시간대인 점도 범죄 불안감이 가장 높은 이유라 할 수 있겠다. 범죄 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창문·베란다의 방범창 설치, 현관에 인터콤 등 외부 확인이 가능한 설비 설치, 복도·계단에 CCTV 등 보안장비 설치, 공용 출입구·공용홀에 경비 등을 통한 외부인 출입방지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한다면 원룸형 주택의 거주자 범죄 불안감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외부에서 범죄에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부분과 이유는 원룸형 거주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유형의 거주자가 같은 응답을 하였는데, 취약한 부분은 골목길 등 거주지 주변 도로와 주차장 등 외진 공간이며, 이유는 골목길 모퉁이나 주차장 등 은닉장소가 존재하기 때문과 가로등·조명 등이 미흡하여 주변이 어둡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에 따른 보완사항은 경비원·순찰 등을 통한 보안강화와 골목길 등 주변 도로의 조명 강화 등으로, 취약한 부분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주택외부 및 주택 주변에서의 범죄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골목길 등 주변도로와 골목길 모퉁이, 주차장 등 외진공간에 대한 조명강화 및 은닉장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아파트의 경우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유형에서의 범죄 불안감, 타 주택유형과 비교하였을 때의 불안감, 2인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과 비교하였을 때의 불안감, 주택 외부 범죄 불안감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 타 주택유형에 비해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 단지를 구성하고 있거나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셋째,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 응답자에 비해 현재 거주하는 주택유형에서의 범죄 불안감, 타 주택유형과 비교하였을 때의 불안감, 2인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과 비교하였을 때 1인가구의 범죄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동거인이 없고,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 여성이 거주하는 주택이 범죄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주 이유로 나타났다으므로, 혼자 있을 경우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창문·베란다 및 현관에서 잠금 장치 강화와 계단·복도 및 공용 출입구·공용홀등의 CCTV·볼록거울

등 보안장비 설치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주택외부 및 주택 주변에서의 불안감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범죄불안감을 보였는데, 이는 1인 가구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성별의 구분 없이 주택 외부 및 주변의 골목길 모퉁이, 주차장, 외진 공간 등의 은닉장소와 주택 주변의 가로등·조명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범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택유형별 주택내외부, 주거지 주변 환경 등의 구체적인 물리적 요소의 분석이 추가되어, 거주자의 범죄불안정성에 대한 인식과 물리적 요소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분석 등이 추가로 연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박혜숙 (2012.05.07). 서울시민이 뽑은 최고의 정책은?, 하이서울뉴스, http://inews.seoul.go.kr/hsn/program/article/articleDetail.jsp?boardID=179190&category1=NC1&category2=NC1_5
2. 통계청 (2012).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www.kostat.go.kr
3.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규모 축소 가능성 진단 (KB 경영정보리포트 No. 2012권-4호). 서울: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4. Choi, D., Kang, S., & Lee, K. (2009). The research for finding crime vulnerable facts in parking lot of apartment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9(1), 233-236.
5. Jung, M., & Kim, S. (1996). A study on the relations of situational characteristics of housing settings and crime occurrenc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2(8), 95-108.
6. Kim, J. (2009). *A study on post occupancy evaluation of the apartment after remodeling*.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7. Kim, J. (2009).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crime*.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8. Kim, M. (2001). The post occupancy evaluation by types of unit plan of apartment -comparison of unit plan with the dining room and kitchen facing the front side and those with DK facing the back sid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2(4), 9-17.
9. Lee, Y. (2010). *A study on single-resident communities based on life-style analysi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10. Park, S., Ryoo, C., & Park, Y. (2007). Post- occupancy evaluation for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high-rise residential complex.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3(9), 63-70.

접수일(2013. 3. 22)
수정일(1차: 2013. 8. 1)
게재확정일자(2013. 8. 7)